

텔레비전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의 변화 양상 연구

- <싸인>, <유령>을 중심으로 -

권양현*

<차례>

1. 들어가며
2. 전통적 수사드라마의 캐릭터
3. <싸인>과 <유령>의 캐릭터 양상
 - 3.1. 캐릭터 유형의 확장
 - 3.1.1. 수사관 캐릭터 : 법의학자, 사이버수사대, 해커
 - 3.1.2. 범죄자 캐릭터 : 권력자 혹은 사이코패스
 - 3.2. 이분법적 캐릭터 구도의 변주와 전도
 - 3.2.1. 희생자로서의 수사관
 - 3.2.2. 쫓는 자로서의 범죄자
4. 나가며

<국문초록>

수사드라마는 인류의 오래된 즐거움, 즉 수수께끼를 통한 추리와 해결이 주는 쾌락을 자극하며, 시청자를 수사의 전개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장르적 특성을 지닌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청자로 하여금 범죄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욕망과 존재에 관한 성찰, 사회문제에 대한 환기를 가능케 하는 장르이기도 하다.

본고는 수사드라마의 장르적 가치나 그것의 새로운 변화와 주목에도 불구하고 수사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에서, 수사드라마의 장르적 성격을 캐릭터 유형 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했다. 즉 TV 드라마 <수사반장>과 <싸인>, <유령>을 텍스트로 텔레비전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의 변화 양상을 추적해보고, 이 같은 양상이 수사드라마 장르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의 수사드라마와 전통적 수사드라마의 캐릭터가 변별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된다. 하나는 캐릭터의 외연적 유형이 확장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분법적 캐릭터의 구도가 변주, 전도되고 있다는 지점이다. 캐릭터 유형의 외연적 확장은 시청자에게 수사드라마가 주는 극적재미를 새로운 테마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며, 소재의 확장에도 기여하였다. 한편 달라지고 있는 수사드라마의 캐릭터 변화 중 주목할 만한 점은 권력자가 범죄자 캐릭터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캐릭터의 변화는 시청자를 권력자의 이중적 모습과 대면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유와 성찰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또 범죄자의 반대편에서 범죄자를 추적하고 탐색하던 수사관캐릭터는 희생자로 변주되거나, 범죄자 캐릭터가 때때로 수사관을 통제하고 쫓는 자로 전도되면서 수사드라마가 지닌 서스펜스를 상승시키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텔레비전 수사드라마는 전대의 수사드라마의 캐릭터 유형을 변주, 변용함으로써 수사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을 더욱 강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수사드라마, 캐릭터, 캐릭터 유형의 확장, 이분법적 구도의 변주, <유령>, <싸인>, <수사반장>

1. 들어가며

인류는 오래전부터 지적 탐험을 통해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것에서 강렬한 즐거움을 체험해 왔다. 수사드라마¹⁾는 이처럼 인류의 오래된 즐거움, 즉 수수께끼를 통한 추리와 해결이 주는 쾌락을 자극하며 시청자를 수사의 전개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장르적 특성을 지닌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청자로 하여금 범죄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욕망과 존재에 관한 성찰과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장르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사드라마는 시청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끌어내는 ‘놀이’

1) 수사드라마는 추리물, 추리드라마, 범죄 수사물, 경찰 수사물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 용어 중에서 수사드라마와 추리물·추리드라마와의 혼용은 문제적이다. 한국의 수사드라마는 외국의 추리물에 존재하는 사립탐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수사행위는 공무집행의 일환으로 묘사된다. 즉 한국의 수사드라마는 추리서사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추리 그 자체가 아니라, 수사의 과정을 거쳐 범인을 검거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추리 자체가 서사의 중심이 되는 추리물과 범인을 검거하여 사회질서의 회복으로 봉합되는 한국의 보편적 수사드라마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전체 아래 본고에서는 물론 차후의 연구에 있어서도 ‘수사드라마’라는 용어를 선택하기로 한다. 단 이 같은 구별은 용어 사용의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여기서는 수사드라마 장르의 범주에 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로서의²⁾ 시청방식과 인간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며, 시청자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사고를 자극하는 사색적³⁾, 성찰적 시청방식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TV드라마의 존재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장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또한 수사드라마는 범죄와 관련된 인간들의 심리에 심층적으로 접근하며 다양한 인물형을 구축할 수 있으며, 풍부한 상상력과 볼거리로 TV드라마의 소재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재의 토양이 척박한 한국 TV드라마의 지형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한 장르임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20대 시청자 층이 HDTV에 적합한 영상미를 선보이는 장르 드라마를 선호⁴⁾하게 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장르 드라마들이 등장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은 수사드라마의 내·외적 진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시청자에게 논리로 추리하며 극으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사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은 오히려 시청자와의 간극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수사드라마의 후퇴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수사드라마는 논리의 차갑고 건조한 질감을 즐겨 받아들이는 세대의 성장⁵⁾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즉 TV를 넘어서 휴대폰, IPTV 등으로 확장된 매체환경의 변화와 젊은 시청자들의 취향의 변화는 2000년대 후반, 수사드라마의 부활⁶⁾을 가져온 동력이 되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드라

2) 윤석진, 「'놀이'로서의 TV드라마 시청 방식 고찰」, 『한국언어문화』 제4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94면.

3)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 예술론』, 나남, 1994, 107면.

4) 윤석진, 「영상예술시대 극예술 장르에 관한 시론 -2000년대 후반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 연구』 제44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5) 이영미, 「젊은 시청자 층의 취향 변화, 추리와 웃음」, 『플랫폼』 제1호, 인천문화재단, 2006, 34면.

6) 예를 들어 치밀한 이야기구조와 새로운 소재, 독특한 영상 표현으로 기존의 수사드라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마왕>(KBS수목드라마, 2007)은 마니아층을 두껍게 형성하며 수사드라마의 장르 진화 양상을 보여준 대표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마왕> 이후 수사드라마는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방송에서도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마의 장르적 가치나 새로운 변화와 주목에도 불구하고 수사드라마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⁷⁾ 따라서 본고는 수사드라마의 장르적 성격을 캐릭터 유형 면에서 논의하는 연구로 수사드라마 연구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먼저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수사드라마가 전대의 수사드라마와 어떠한 차별성을 지니며 변모하고 있는지, 그러한 변모가 수사드라마 장르의 진화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수사드라마의 캐릭터⁸⁾에 방점을 두고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캐릭터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지어 주며 동시에 그 인간의

‘법의학’을 소재로 한 OCN의 <신의 퀴즈>(시즌1~3, 2010.10.8~2012.8.12, 이준형·이정표·안진우 연출, 박재범 극본, 류덕환·윤주희·안내상 외 출연), 외국 수사드라마의 장점과 한국적인 이야기를 조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별순검>(시즌 1~3, 2007.10.13~2010.11.13, 이승영·박수철·김미숙 외 연출, 강현성·남상욱 외 극본, 류승룡·안내상·온주환·김무열 등 출연)은 시즌 3까지 방영되었다. 또한 최근 전통수사드라마의 맥을 잇는 OCN의 <특수사건전담반 TEN> 역시 시청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시즌 1에 이어 시즌2가 방영되고 있다(OCN, 총12부작, 2013.4.14.~2013.6.30, 이승영 연출, 이재곤 극본, 주상욱·조안·김상호·최우식 출연).

- 7) 김영성이 “소설에 대한 연구와 이론화는 ‘순수문학/대중문학, 문학성/대중성, 고급문화/대중문화’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극복하고 영화를 포함한 다른 대중서사의 해석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김영성, 『한국 추리서사의 서사성과 대중성에 관한연구(1)-추리서사의 사적 개념과 적용 범주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화』 제29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186면)고 지적했던 것처럼, 본고는 추리문학, 혹은 추리서사의 연구가 소설이라는 개별 장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문화의 서사 텍스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로 기왕의 추리문학, 추리서사에 관한 연구의 이해를 취사선택해 활용할 것임을 밝힌다.
- 8)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person, figure, character 등이 있는데, 이들은 유사한 개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person은 ‘가면’을 뜻하는 persona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리스극에서는 연극자가 맡은 역할을 뜻하는 것이었다. 즉 연극에서 배우가 맡은 역할과 행위, figure는 작가의 피조물로서의 인간, 즉 인공적 인물을 의미한다. 그리고 character는 극에서 한 인물의 본성이나 특질을 뜻하는 것으로 극에 등장하는 인물의 정신적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다(이명우, 『희곡의 이해』, 박이정, 1999, 124~125면). 본고는 수사드라마의 등장인물이 전대와는 어떻게 변주 혹은 변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 등장인물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서 등장인물과 그들이 가진 성격적 특징이 모두 포괄되어 있는 ‘캐릭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본질을 드러내는 모든 자질, 성질, 특성 등으로 구성⁹⁾되는데, 시청자들은 그러한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의 의미나 혹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하게 된다. 한편 캐릭터의 성격, 즉 등장인물의 성격은 사건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필연성 혹은 개연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⁰⁾ 특히 수사드라마는 일반적으로 범죄의 발생으로 시작해 범인을 추적하는 수사관과 추적당하는 범죄자의 이야기가 중심서사를 이루는데, 그 속에 존재하는 캐릭터는 수사관, 범죄자, 희생자로 선명하게 나뉜다. 따라서 수사드라마는 치밀한 캐릭터 구축이 극의 완결성을 성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캐릭터의 양상을 살피는 과정은 수사드라마의 내·외적 진화를 확인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한편 오명환에 따르면 1956년에 본격화된 미국의 수사드라마 <지방검사(Mr. District Attorney)>는 LA를 무대로 지방검사국의 수사과일을 기초로 하여 제작한 시리즈였으며, 일본의 최초 수사드라마 <다이얼 110번>도 경시청, 경찰청의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드라마화 된 것으로, 세계를 막론하고 수사드라마의 원형은 치안당국, 즉 경찰기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시경, 치안본부, 수사과에서 소재 제공과 수사관의 기본요건의 훈련, 그리고 제작 협조를 수렴했던 <수사반장> 역시 사건일지, 범죄의 기록을 시놉시스로 한¹¹⁾ 한국수사드라마의 원형, 혹은 전통적 수사드라마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통적 수사드라마로 <수사반장>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 ‘법의학’과 ‘사이버수사’라는 새로운 테마로 전대의 수사드라마에서는 한 번도 시도한 적 없는 독특하고 참신한 소재, 치밀한 이야기 구조와 캐릭터 구축, 에피소드 전체를 관통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며, 장르드라마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¹²⁾되

9) 데이비드블, 김석만 옮김, 『통쾌한 희곡의 분석』, 연극과인간, 2007, 111면.

10)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 2013, 93면.

11)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 사회학』, 나남, 1994, 133~134, 140면.

는 <싸인>¹³⁾과 <유령>¹⁴⁾을 바탕으로 수사드라마의 핵심적인 캐릭터인 수사관과 범죄자 캐릭터가 변주 혹은 변용되는 지점을 밝혀보고, 그것이 수사드라마 장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고찰해 보겠다.

2. 전통적 수사드라마의 캐릭터

이 장에서 <수사반장>을 ‘전통적 수사드라마’로 규정지은 것은 앞서도 말했듯이 <수사반장>이 각 나라의 수사드라마가 경찰기록으로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교집합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수사반장>의 인물 유형은 외국 수사드라마의 인물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국 수사드라마의 수사관의 경우, 탐정(detective worker), 수색자(investigator), 추적자(chaser), 타개자(undercover man), 범죄심리자(criminal psychologue), 거간꾼(agent)의 기능을 종합하는 현대판 영웅으로 구현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로 생산된다.¹⁵⁾ 그에 비해 <수사반장>은 20년여 동안 고정된 캐릭터로 외국 수사드라마의 인물형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수사드라마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물의 유형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게 변용되었음을 전제로 <수사반장>을 ‘한국’의 ‘전통적 수사드라마’로 규정하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12) <싸인>은 ‘2011년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의 방송 영상 그랑프리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한겨레, 2011.12.12), <유령>은 다양한 사이버범죄와 그 해결 과정을 담은 드라마로 일반적이지 않은 소재인 만큼, 사람들에게 최대한 익숙한 이슈를 등장시키고 여기에 현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녹아낸 장르드라마(『한겨레』, 2012.8.6)라는 평이다.

13) <싸인>(SBS, 총20부작, 2011.1.5~2011.3.10), 김형식·김형민 연출, 김은희·장항준 극본, 박신양·김이중·전광렬·엄지원·정겨운 등 출연.

14) <유령>(SBS, 총20부작, 2012.5.30~2012.8.9), 김형식·박신우 연출, 김은희 극본, 소지섭·엄기준·곽도원 등 출연.

15) 오명환, 앞의 책, 138면.

<수사반장>¹⁶⁾은 최불암, 김상순, 남성훈, 조경환, 노경주가 수사관으로 출연, 범죄를 해결하는 활약상을 그린 한국 TV 수사드라마의 대표적 작품이다. 주지하듯 <수사반장>은 시경, 치안본부 수사과에서 소재를 제공받아 방영되었다. 즉 실제 수사기록 그 자체가 <수사반장>의 구성이자 시놉시스이다. 때문에 수사반장의 수사관 캐릭터는 수사기록의 맥락 위에 존재하며, 일차적으로는 경찰 공무원으로 규정된다.

<수사반장>의 대표적 수사관 캐릭터인 박반장(최불암 분)이 매회 입고 나오는 ‘낡은 바바리 코트’는 곧 청렴하고 모범적인 경찰관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사반장의 수사관 캐릭터가 모범적 경찰 공무원의 모습으로만 재현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박반장이 수사 중 범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눈물겨운 사연과 마주할 때마다 사용하던 ‘손수건’은 한국 수사관의 심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는 박 반장이 지적이고 냉엄한 수사관 캐릭터라기보다는 자기 품속에 범인을 용해해 가는 따뜻한 아버지 또는 만형같은 캐릭터로 부각¹⁷⁾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수사반장>의 수사관 캐릭터는 차가운 논리와 지성, 냉엄함으로 무장하는 대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한국적 정서에 기대어 휴머니즘을 실천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따라서 <수사반장>속 수사관의 갈등의 원인은 법과 인륜의 충돌에서 발생하며, 범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적이며 정서적인 접근¹⁸⁾을 시도한다. 수사관은 범인의 인간적 양심에 호소하여 범행을 인정하도록 유도하면서 범죄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 이 같은 수사관캐릭터의 특성은 시청자에게 범인을 찾아가는, 추리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지적 즐거움보다 정의와 휴머니티를 실천하는 수사관과 그에 의해 범죄를 뉘우치는 범인과의 관계 속에서

16) <수사반장>(MBC, 1971.3.6~1984.10.18./1985.5.2~1989.10.12), 허규·박철·유홍렬·이년현·이효영·강철호 외 연출, 김정환·신명순·이상현·윤대성 외 극본, 최불암·김상순·남성훈·조경환·노경주 외 출연.

17) 오명환, 앞의 책, 138면.

18) 위의 책, 135면.

정서적 감동을 느끼게 한다.

한편 <수사반장>에서 다루어진 범죄의 유형들을 보면 마약범죄(<천국의 초대>), 택시강도(<우리는 람보>), 인신매매(<또 하나의 유배>), 연쇄살인사건(<서울은 비>), 어린이 유괴사건(<사천만의 눈동자>)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용서할 수 없는 악인의 모습이기보다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후회하고 눈물 짓는 지극히 인간적인 캐릭터로 구현된다.

정리하면 전통적 수사드라마에서는 수사관 캐릭터이든 범죄자 캐릭터이든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캐릭터로 구현되는데, 당대의 시청자들은 수사드라마를 통해 경험하는 휴머니즘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는 당대의 시청자들이 산업화 시대의 범죄자를 포함한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수사관 박반장 캐릭터에게 위로받고, 범죄자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연’에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휴머니즘이 강조되는 수사관과 범죄자 캐릭터의 구축은 전통적 수사드라마의 대표적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통적 수사드라마는 범죄의 정치·사회적 요인을 추적하는 데에는 미흡한 측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캐릭터의 휴머니즘적 특성이 인물을 개성 없는 캐릭터로 전락시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따뜻한 인간성을 지닌 수사관은 범죄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강화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개인적 맥락만을 부각시켜 범죄의 정치·사회적인

19) 최불암은 <수사반장>이 당대의 시청자에게 어떤 의미의 드라마였는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재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인기 ‘드라마’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반장>이란 사회성을 지닌 드라마를 통해서 사회의 막힌 곳, 응달진 곳을 밝히고 풍자하는, 말하자면 그냥 흥미 중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의롭고, 인도적인 인간미가 넘쳐흐르는 휴머니즘 프로의 성격을 지니면서 모든 사건을 잘 증재해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최불암, 『그것이 무엇이관대』, 시와 시학사, 1991, 158면, 오명환, 앞의 책, 133면에서 재인용)

요인에 관한 비판적 사유를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특성의 수사관 캐릭터는 범죄자의 정서적인 면에 접근하여 죄를 뉘우치게 하는 교조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생동감 있고 개성 있는 특질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사반장>의 인간적 면모를 지닌 캐릭터들은 당대의 시청자들과 교감하며 정서적 감동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 수사드라마가 지니는 대표적 특성이라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3. <싸인>과 <유령>의 캐릭터 양상

20세기 <수사반장>의 박반장이 남긴 “빌딩이 높아질수록 그림자는 길어진다”는 대사는 일부 사회학자들이 현대화에 따른 변화가 전통적 사회 질서와 가치의 사회적 통제를 약화시킴으로써 사회해체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²⁰⁾ 즉 21세기 신자유주의로 비롯된 세계화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대신 공동체적 삶의 질서를 뿌리째 흔들어 놓으며 우리 사회를 무한경쟁, 극단적 자본주의로 치닫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이버범죄, 사이코패스의 출현, 기득권 세력들의 범죄 등 이전과는 또 다른 범죄의 양상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점차 치밀해져가는 범죄를 수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과학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한편 매체환경의 변화로 해외드라마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장르물이 발달한 미국드라마가 안방에 유입됐고, 시청자들은 CSI와 같은 수사드라마에 노출되기 시작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장르물에 대한 시청자들의 수요를 자극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 아래 2000년대 후반, 수사드라마

20) 로럴드 L.에이커스 · 크리스틴 S.셀러스, 민수홍 외 공역, 『범죄학이론』, 나남, 2011, 271면.

는 변화하는 사회상과 매체 환경의 변화로 달라진 시청자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며 전대의 전통적 수사드라마가 보여주었던 캐릭터로부터의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도는 2000년대 후반, 수사드라마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었던 새로운 지점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싸인>과 <유령>에 나타난 캐릭터들의 양상을 중심으로 전통적 수사드라마의 캐릭터가 변화된 지점들을 구명하면서, 그러한 지점들이 수사드라마에서 어떠한 역할과 의의를 지니는지, 수사드라마장르의 진화를 이루는데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3.1. 캐릭터 유형의 확장

3.1.1. 수사관 캐릭터 : 법의학자, 사이버수사대, 해커

일반적으로 수사드라마에서 수사관 캐릭터는 서사의 중핵이 되는 인물로, 두드러진 성격을 지닌 인물이며, 작가를 투영하는 존재이고, 시청자의 분신이자 단서의 제공자인 동시에, 마침내 문제를 해결해 내는 인물²¹⁾로 그려진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통적 수사드라마에서 수사관 캐릭터는 악을 물리치고 부정을 척결하고 범죄자마저 감싸 안는, 휴머니티로 점철된 ‘경찰관’으로 표상된다. 그런데 <싸인>에 이르면 한국의 수사드라마의 ‘수사관=경찰관’이라는 등식은 깨지고 경찰관의 자리에 법의학자가 놓이게 된다. 죽은 자들의 사체를 부검하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원인과 범인의 추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의학의 특성은 ‘추리서사’를 기본으로 하는 수사드라마장르의 관습적 내러티브에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이 때 법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얻은 단서들을 범죄 사건의 해결에 활용하고 범인의 동선을 추적하는 법의학자는 수사관의 다른 이름이 된다.

21) 윌러드 헌팅턴 라이트, 송기철 역, 『위대한 탐정 소설』, 북스피어, 2011, 40면.

<싸인>의 1회 오프닝 장면은 법의학자 윤지훈(박신양 분)이 의문사로 죽은 서유희의 사체가 담긴 베드를 어둠 속에서 밀고 나오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명암의 극단적인 대비를 이루는 조명 속의 윤지훈의 모습은 미디엄 샷에서 미디엄 클로즈 업 샷으로 강조되며, 카메라와 동일한 시선으로 윤지훈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에게 각인된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검 장면은 범죄행위의 수수께끼 해결에 적용되는 현대 과학과 기술의 힘을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연상케 할 만큼 감각적으로 구현²²⁾하고 있다. 이러한 <싸인>의 오프닝 장면은 법의학을 테마로 인간 몸의 해부를 통해 밝혀지지 않는 사인(死因)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겠다는 법의학자이자 수사관인 캐릭터의 의지를 선명하게 해주는데 기여한다. 한편 수사드라마의 내러티브는 범죄의 발생→희생자의 발견→수사의 시작→수사의 재국면→진상의 규명과 가해자의 확인→확인결과→해결의 여부로 공식화되는데, ‘법의학’에 기초한 부검행위는 ‘수사의 시작’ 단계²³⁾로 수사관으로서의 법의학자 윤지훈은 사체의 부검을 통해 사체에 남겨진 흔적들을 단서로 범죄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친다. 이때 시청자는 윤지훈의 법의학적 시선을 대리 체험하면서 추리와 해결이라는 욕망을 자극하는, 수사물이 주는 오락성에 몰입하게 된다. 결국 수사관의 다른 이름인 ‘법의학자’의 차용은 시대가 요청하는 과학수사의 필요성을 수렴한 결과일 수 있으며, 시청자에게 수사드라마가 주는 극적 재미, 즉 추리와 서스펜스를 ‘법의학’이라는 새로운 테마로 경험하게 한다.

한편 정보통신 기반 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이버공간은 이미 일상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간편성으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개인정보침해, 인터넷사기, 음란물 유포 등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신

22) 주현식, 「텔레비전 드라마 <싸인>의 시작 방식과 연행성」, 『대중서사연구』 제25호, 대중서사학회, 2011, 320면 참고.

23) 위의 논문, 325면.

중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²⁴⁾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이버수사대인데, 이들의 등장 역시 수사드라마 속 수사관 캐릭터에 그대로 반영된다. <유령>의 김우현(소지섭 분)은 사이버수사대의 요원으로 활약하는데, 그의 뛰어난 역량과 수사관으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은 첫 회에서 확인된다.

경찰대, 강의실

‘사이버 수사의 실체’라고 적혀진 칠판.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인 제복을 입은 경찰대학생들,
잡담을 하고 옆드려서 잠을 자는 등 쉬는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학생들의
모습들 사이사이, 스마트폰으로 트위터, 카톡,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핸드폰 화면, 클로즈업해서 교차된다.

‘경찰행정 숙제 다 했으면 메일로 좀 쏴줘라. 살살 베길게’

‘이 날씨좋은 날, 뭘 개떡같은 사이버 수사냐.’

‘특강 강사? 뭐 노땅 하나 기어 나와서 폼 잡겠지’

<유령> 1회 #3

위의 장면에서 보다시피 학생들은 강의를 기다리며 스마트 폰으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눈다. 이어 등장하는 우현은 학생들의 스마트 폰의 대화 내용을 해킹해 그들의 대화를 이미 꿰뚫고 있다. 우현은 “여러분은 지금 무선 정보를 해킹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수집당한 개인정보들은 주민번호 도용 등의 심각한 범죄에 사용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1회)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우현이 있는 사무실이 비춰지면, ‘사이버 세상을 지키는 눈’이란 글귀와 함께 ‘사이

24) 강맹진·김진철, 『현대사회와 범죄』, 대왕사, 2007, 87면.

버 수사 1팀'이란 뜻말이 보인다. 이는 사이버수사대를 배경으로 각종 사이버 범죄, 이를테면 악성댓글, 디도스 공격, 전력망 해킹 등을 해결하는 전문적 인력으로서의 수사관의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유령>의 첫 회 역시, <싸인>에서처럼 캐릭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전대의 경찰관이라는 고정된 수사관 캐릭터를 변주하여 변화된 사회구조가 요청하는 새로운 유형의 수사관 캐릭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관 캐릭터의 확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죽은 김우현을 대신하는 박기영(최다니엘 분)은 엄격히 말해 사이버수사대 요원은 아니다. 김우현의 얼굴을 한 박기영은 오래전 경찰대를 자퇴하고 부조리한 사회에서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커로 거듭난 캐릭터이다. 때문에 겉모습은 사이버수사대요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커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해커로서의 능력을 발휘해 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한 범죄자 조현민(엄기준 분)의 죄를 세상에 알리게 된다.

이상에 살펴본 것처럼 경찰로만 고정되어 있던 수사관 캐릭터 유형은 변화된 사회상과 더불어 시대가 요청하는 과학수사의 필요성을 수렴하며 법의학자에서 사이버수사대, 해커에 이르며 캐릭터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었다. 이렇게 확장된 캐릭터 유형은 시청자에게 수사드라마가 주는 극적재미를 새로운 테마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며, 수사드라마의 소재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3.1.2. 범죄자 캐릭터 : 권력자 혹은 사이코패스

일반적으로 수사드라마에서 경찰 내의 비리나 권력자의 비리가 범죄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대의 수사드라마에서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권력자의 범죄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었던 사회적 환경과 기반이 취약했던 탓에 그것은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득권 세력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주목은 2000년대

후반의 수사드라마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사회 고위층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한 한국적 사회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수사드라마가 고발하고 싶은 범죄자들은 사회 고위층이며 그들의 비리는 악의 근원이 된다.²⁵⁾ 이 같은 현상은 구한말의 위기와 일제 강점기 그리고 대한민국 50년 동안 정치적 굴곡을 겪어 오면서 진실을 향한 감수성은 언제나 권력의 위세에 밀려²⁶⁾있었던 우리 사회의 역사적 체험에서 비롯된다. 법과 질서는 더 이상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모호하며 의심스러운 것이 되어갔다.²⁷⁾

전통적 수사드라마에서는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합법을 가장한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가 범죄자로 부상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욕망하는 대중의 기대가 수사드라마의 범죄자 캐릭터를 권력자로 확장하게 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싸인>과 <유령>을 관통하는 범죄 사건의 범인은 모두 권력자 혹은 사회 고위층이다. <싸인>의 범죄자는 대권후보의 딸 강서연(황선희 분)으로 한때 자신의 연인이었던 아이돌 한류 가수 서운형이 변심했다는 이유로 질식사시킨다. <유령>의 조현민(엄기준 분) 역시 세상증권과 백신회사인 세이프텍의 대표로 자본과 정보력을 지닌 캐릭터이다. 그는 백신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에도 서슴없이 행하는 인물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있다. 강서연과 조현민은 드라마 초반 혹은 중반에서 이미 범인임이 밝혀지지만 사회고위층이자 권력을 가진 슈퍼 갑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범인으로 증명하는 것은 어

25) 김유미, 「2000년대 텔레비전 추리 드라마의 특징 -심리적 요소의 활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61호, 민족어문학회, 2010, 199면.

26) 김인영 외, 『비리와 합리의 한국사회』, 소화, 1999, 50면.

27) 에르네스트 만델, 이동연 역, 『즐거운 살인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후, 2001, 219면.

럽다. 때문에 사건은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시청자는 권력자들의 이중적 모습, 우리사회의 부조리한 이면들을 목격하게 되고,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부여받는다. 한편 강서연과 조현민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이들 모두 사이코패스²⁸⁾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것이다.

조현민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면서 감정의 흔들림이 전혀 없이 침착하고 냉철하다.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는 존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죽여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사이코패스적인 사고이다.²⁹⁾

현민 : 어렸을 땐 그랬죠. 그깟 컴퓨터 하나로 뭘 할 수 있겠냐고...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어요. 이 사회가 거대한 프로그램이 돼버렸죠. 사람은 그 프로그램을 이루는 0과 1, 두 가지 숫자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나뉘지죠. 필요 없다면.. 마우스를 클릭해서.. 지워버리면 끝이에요.

<유령> 16회 #11

28) 사이코패스는 높은 수준의 반사회적 행동, 즉 특별한 형태의 정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관련된 정신병리의 한 형태이다(James Blair, Derek Mitchell, Karina Blair, 이윤영·김혜원 옮김, 『사이코패스 : 정서와 뇌』, 시그마프레스, 2012, 21면). 한편 자기중심적, 자기도취적이며 남의 권리나 기분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무례하고 때로 폭력적인 행동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마이클 스톤, 허형은 역, 『범죄의 사회학』, 다산초당, 2009, 67면)이다.

29) 조현민이라는 캐릭터의 구축에서 문제적인 지점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신호정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적인 그가 마지막 회에서 신호정이 임신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갑자기 심리적 동요를 일으켜 자살을 선택한다는 설정이다. 이처럼 캐릭터의 일관성이 결여된 갑작스런 심리적 변화는 설득력 있는 캐릭터의 구축에 실패한 지점이라고 판단된다.

현민 : 정의? 기가 막히는군.. 그런 게 아직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아? 정의는 없어. 승부가 있을 뿐이야. 지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승부.

기영 : 그래서 승부에서 이기자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야?

현민 : 시합에서 진 사람들은 퇴장을 해야지.

<유령> 20회 #29

이처럼 그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분 지으며 필요 없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싸인>의 범죄자 강서연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조현민의 범죄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라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데 반해, 강서연의 범죄는 최고위층에 속하는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라고 규정 지으며, 권력자인 자신이 저지르는 잘못을 어떤 누구도 벌할 수 없다는 오만에서 비롯된다. 강서연은 사랑했던 연인을 살해하고 나서도 태연하게 사건 현장을 떠나고,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저지른 직·간접적인 살인 행위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죄의식을 보이기는커녕 죽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전가한다. 이러한 강서연의 의식세계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병리적인 형태를 띤다.

서 연 :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서연의 시선 쫓아가면, 맞은편에는 굳은 얼굴의 이명환) 왜 안 드세요? 입맛에 안 맞으시면 다른 걸로 주문할까요?

이명환 : (보다가)강서연양...직접적이건...간접적이건 당신은 네 명을 죽였습니다.

서 연 : (미소지으면서 본다) 지금...절 비난하시는 건가요? 죽은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감히...주체도 모르고...날 배신했거든요.

<싸인> 17회 #23

이러한 강서연의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 윤지훈을 서윤형과 같은 방식으로 살해하는 장면에서 정점에 다다른다. 그녀는 윤지훈을 살해하고 나서도 태연하게 벽난로 앞에 앉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를 죽인 쿠션을 가위로 자르면서 벽난로에 집어던지며 미소 짓는다. 이는 두드러지게 공감에 장애를 보이거나 슬픔에 자율신경 반응이 감소³⁰⁾하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같은 권력자 혹은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지닌 범죄자 캐릭터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악으로 묘사되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하게 뿌리 뽑힐 수 없는 악임을 확인시켜 주기도 한다. “난 태어나면서 당신들과 틀린 사람이야.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난 무죄로 풀려날 거야.”(20회)라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당당하게 검거되는 강서연의 모습이나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조현민의 모습은 정당한 법의 테두리로는 그들을 응징하기에 버거워 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전통적 수사드라마의 범죄자가 대부분 가진 것 없는 자들에 한정됐었다면 <싸인>과 <유령>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합법을 가장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된 권력자들로 확장된다.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권력자들의 이중적 모습, 우리사회의 부조리한 이면들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재인식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 드라마의 담론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3.2. 이분법적 캐릭터 구도의 변주와 전도

3.2.1. 희생자로서의 수사관

토도로프에 따르면, 추리서사는 ‘범죄의 이야기’와 ‘탐색(조사)의 이야

30) James Blair, Derek Mitchell, Karina Blair, 앞의 책, 82면.

기'로 구분되는 이중적인 이야기로 구성된다. '범죄의 이야기'는 수사관이 현재에서 펼치는 '탐색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끝난다. 따라서 그것은 현재에는 부재하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중적인 이야기 구성방식으로 인해 추리서사는 하나의 시체나 어떤 단서와 같은 결과로부터 그것의 원인, 범인과 그의 동기를 발견해 가는 것이다. 즉 범죄에 대한 '탐색이야기'를 중심으로 현재에는 부재하는, '범죄의 이야기'로 향하는 것이다.³¹⁾ 전통적 수사드라마에서 범죄에 대한 '탐색이야기'에는 수사관 캐릭터가 존재하며 '범죄의 이야기'에는 범죄자, 범죄자로 인해 희생된 희생자가 존재한다. 때문에 수사관 캐릭터와 범죄자 캐릭터는 각각의 이야기 속에 이분법적 구도로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변화하는 수사드라마 속 수사관 캐릭터는 '탐색이야기'에 존재하는 것은 물론 '범죄의 이야기' 속에도 존재한다. 즉 발생한 '범죄 이야기'에 수사관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서술되지 않은 공백'³²⁾을 추적하고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수사관이 '범죄 이야기' 속에 가담하게 되고, 범죄자에 의해 희생당하는 희생자로 변주된다.

<유령>의 김우현은 발생한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범죄이야기', 즉 조현민이 남상원 상무를 살해하는 사건에 가담하게 된다. 이는 위장 수사를 위한 것이기는 했지만, 남상무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진실은 김우현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범죄이야기' 속에 존재하던 수사관 김우현은 결국 범죄자 조현민에 의해서 희생되고 만다. 이처럼 수사관인 김우현은 '범죄 이야기' 속에 가담하게 되고 범죄자에 의해 희생당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김우현이 왜 희생되어야 했는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드라마의 출발이 된다. 그리고 그 탐색의 주체는 김우현에서 박기영으로 대체된다. 기영은 우현의 경찰대학교 동기이자 룸메이트였으나, 멜리사 바이러스로 장난삼아 경찰관이었던 우현 아버지의 메일을 열어보다 극비문서(세강 증권의 비자금)를 담은 수사정

31) T.토도로프, 신동욱 역, 『산문의 시학』, 문예, 1992, 50-53면 참고

32) S.지젝, 김소연·유재희 역, 『뼈뚫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122면.

책)에 대한 글을 보게 되고, 그 때문에 취조를 받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우현의 아버지는 기영에게 그 사건이 경찰 수뇌부들과 연루되어있음을 알리고 더 이상 밝혀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에 기영은 권력자와 결탁한 경찰 조직에 깊은 회의와 실망을 느끼고 경찰대를 자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와 진실을 수호하기 위해 하데스라는 닉네임으로 해커의 길을 가게 된다. 이후 신호정 자살사건이 타살임을 공개하며 경찰들과 대립의 각을 세우던 하데스 박기영은 결국 김우현과도 대립하게 되고 범인에 의해 김우현이 죽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 우현과 같은 장소에 함께 있었던 기영 역시 안면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 기영은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해”(2회)라는 마지막말을 남기고 죽어간 우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현의 얼굴로 다시 살아가게 된다. 기영은 과거, 권력과 결탁한 경찰들의 부조리한 모습을 목격한 후, 누구도 믿지 않는 캐릭터이지만, 사이버수사대 요원 김우현으로서 사건을 해결해 가면서 점차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수사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된다.

<싸인>의 윤지훈은 그 어떤 외압이나 사적인 감정을 용납하지 않으며 오직 과학적 진실만을 추구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법의학자이다. 그러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녔던 재벌그룹의 직원들이 연쇄적으로 의문사하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20년 전 돌연사 했던 아버지 죽음의 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 진실이란 정병도 원장(송재호 분)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약속한 재벌그룹 회장과 결탁하여 아버지 부검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아버지처럼 따랐고 법의학자로서의 신념의 원천이었던 정병도원장의 진실은 윤지훈을 번민에 빠지게 한다. 결국 정병도 원장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명예를 위해 윤지훈은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과학수사를 향한 신념을 저버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윤지훈은 물증중심의 ‘과학적 진실 규명’에 집착하는 대신 심증 중심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한다.³³⁾ 성찰의 시간을 보낸 후, 윤지훈은 그동안 정치권력의 교묘한 은폐로 누구도 밝혀려 하

지 않았던 서윤형사건의 진실을 위해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이때 그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강서연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고 자신을 서윤형의 죽음처럼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죽이도록 유도함으로써 지금까지 은폐되었던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고자 한 것이다. 결국 수사관캐릭터로서의 윤지훈은 ‘범죄 이야기’속의 희생자로 변주됨으로써 수사관 캐릭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범죄자의 반대편에서 범죄자를 추적하고 탐색하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존재했던 수사관캐릭터는 희생자로 변주된다. <유령>의 김우현이 범죄자에게 희생되고 박기영이 자신의 삶 대신 ‘다른 사람의 삶을 지고’ 살아가야하는 것 역시 희생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싸인>의 윤지훈은 스스로 범인의 희생자가 됨으로써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수사관마저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나아가 모두가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공격과 범죄가 일반화된 사회를 드러내며, 사회의 퇴화상태를 증언³⁴⁾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희생자로 변주되는 수사관캐릭터는 그 과정에서 성찰과 성숙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범죄와 마주하면서 자신의 오류를 성찰하고 진실과 정의의 실천자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은 수사관캐릭터를 단순히 범죄를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평면적 역할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와 같은 캐릭터의 변주는 ‘범죄이야기’ 바깥에 존재하면서 ‘탐색이야기’에서만 기능했던 수사관캐릭터를 ‘범죄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입체적인 캐릭터로 구현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수사관캐릭터의 희생으로 비로소 사건이 해결되는 구도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보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역설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다.

33) 윤석진, ‘시적 정의(poetic justice)의 수호자’, 『드라마 캐릭터 열린 14』, 동아일보 2011.2.25.

34) 이브 뢰테르, 김경현 역, 『추리소설』, 문학과 지성사, 2000, 120면.

3.2.2. 쫓는 자로서의 범죄자

수사드라마의 중심서사가 추리 서사를 그 축으로 한다면, 그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에 대한 ‘탐색이야기’가 중심이 되면서 부재하는 ‘범죄의 이야기’에 접근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적 수사드라마의 캐릭터는 쫓는 자로서의 수사관이 ‘탐색이야기’의 주체가 되며 쫓기는 자로서의 범죄자는 ‘범죄 이야기’의 주체가 된다. 그런데 캐릭터의 확장으로 범죄자의 유형이 권력자로 옮겨가면서 권력자가 지닌 자본과 정보력 등은 범죄자 캐릭터가 수사관캐릭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게 하며 수사관을 쫓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도록 한다. 따라서 범죄자는 자신들을 쫓는 수사관을 쫓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교란시키며 범행을 은폐할 수 있게 된다.

이때의 범죄자 캐릭터는 수사관 캐릭터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결양상을 펼친다. 전통적 수사드라마의 범죄자 캐릭터가 수사관을 피해 주로 도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때, 수사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대결한다는 것은 분명 변화의 지점이다. 이렇게 쫓는 자로서의 범죄자가 수사관과 대결양상을 보이는 구도는 전통적 수사드라마의 이분법적 캐릭터 구도를 전도시키면서 긴장감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양상은 <싸인>에서보다 <유령>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유령>의 조현민은 세강증권과 백신회사인 세이프택의 대표로 자본과 정보력을 갖춘 범죄자 캐릭터이다. 세강그룹이 회장이었던 조현민의 아버지는 동생 조경신으로 인해 죽게 된다. 조현민은 자신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 하지만 조경신에게 매수당한 이들로 인해 좌절당한다. 이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을 숨기며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데 성공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을 차례로 죽인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조현민은 자신이 이 모든 범죄의 배후임을 알게 된 우현이 사실은 박기영임을 확신

하게 되고, 현민은 기영에게 “ 이제 경찰 놀이는 끝났습니다. 김우현이건 박기영이건 상관없어요. 당신은 이제 끝이야”(17회)라고 차갑게 말하며 기영을 위험에 빠뜨릴 계락을 꾸민다.

문상무 : 전재욱 국장의 죽음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맡았습니다.
(미소 띄며) 신경수 수사국장의 직속 부하들이죠.

현 민 : ..씨씨티브이도 없고.. 살해 동기도 없고.. 미제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문상무 : 예..

현 민 : 이제.. 박기영만 남았네요.

문상무 :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고..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루스토리, 본가, 경찰청, 오피스텔..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1팀의 이메일도 감시 중입니다. 잡히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유령> 18회 #2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민은 자신이 가진 힘과 정보력으로 기영에게 누명을 씌워 기영을 쫓기는 자로 만들고, 기영을 포함한 경찰 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한다. 이 같은 범죄자의 면모는 전통적 수사드라마의 범죄자캐릭터와는 분명하게 변별되는 지점이다. 수사관에게 쫓기고 도피하며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범죄자에서 이제는 수사관조차 감시,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 수사관과 대등하거나 우위에 위치하여 대결하며,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거침없이 드러낸다.

이렇게 수사관과 범죄자의 쫓고 쫓기는 이분법적 구도가 흐릿해지고 범죄자 캐릭터가 때때로 수사관을 통제하고 쫓는 자로 전도될 때, 시청자가 경험하는 긴장감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결국 쫓기는 자로서의

최후를 맞을 때, 즉 수사관에 의해 범죄자의 본모습이 드러나고 그의 죄가 응징될 때, 시청자는 수사드라마가 안겨주는 즐거움의 미학을 만끽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전통적 수사드라마의 수사관과 범죄자의 이분법적 구도가 전도되면서 서스펜스는 강화되고 악의 응징이라는 변하지 않는 결말은 시청자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4. 나가며

이상으로 수사드라마의 핵심적인 캐릭터인 수사관과 범죄자 캐릭터가 변주 혹은 변용되는 지점을 밝혀보고 그것이 수사드라마 장르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전통적 수사드라마의 캐릭터와 변별되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캐릭터의 외연적 유형이 확장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분법적 캐릭터의 구도가 변주, 전도되고 있다는 지점이다.

전통적 수사드라마에서는 수사관캐릭터이든 범죄자캐릭터이든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캐릭터로 구현되는데, 경찰관으로만 고정되어 있던 수사관 캐릭터 유형은 변화된 사회상과 더불어 시대가 요청하는 과학수사의 필요성을 수렴하며 범의학자에서 사이버수사대, 해커에 이르기까지 그 외연이 확장되고 있었다. 이렇게 확장된 캐릭터 유형은 시청자에게 수사드라마가 주는 극적재미를 새로운 테마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며, 수사드라마의 소재의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한다. 한편 달라지고 있는 수사드라마의 캐릭터 변화 중 주목할 만한 점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합법을 가장한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가 범죄자 캐릭터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생겨난 변화라고도 할 수 있으며, 사

회 고위층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한국적 사회상과 이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욕망하는 대중의 기대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캐릭터는 시청자로 하여금 권력자들의 이중적 모습, 우리사회의 부조리한 이면들을 목격하게 만들며,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가능하게 하며, 성찰의 과정을 거치게 만든다. 결국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해 합법을 가장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된 권력자들로 확장된 캐릭터는 시청자의 의식을 촉발시키면서 시청자를 드라마의 담론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수사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을 강화한다.

한편 범죄자의 반대편에서 범죄자를 추적하고 탐색하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존재했던 수사관캐릭터는 희생자로 변주되는데, 중요한 것은 희생자로 변주되는 수사관캐릭터는 그 과정에서 성찰과 성숙에 이르는 것이다. 범죄와 마주하면서 자신의 오류를 성찰하고 진실과 정의의 실천자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은 수사관캐릭터를 단순히 범죄를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평면적 역할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와 같은 변주는 ‘범죄이야기’ 바깥에 존재하면서 ‘탐색이야기’에서만 기능했던 수사관캐릭터를 ‘범죄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 입체적인 캐릭터로 구현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수사관과 범죄자의 쫓고 쫓기는 이분법적 구도가 흐릿해지고 범죄자 캐릭터가 때때로 수사관을 통제하고 쫓는 자로 전도될 때, 시청자가 경험하는 긴장감은 상승하게 된다. 즉 전통적 수사드라마의 수사관과 범죄자 캐릭터의 이분법적 구도가 전도되면서 서스펜스는 강화되고 악의 응징이라는 변하지 않는 결말은 시청자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요컨대 최근의 수사드라마는 변화하는 매체환경과 사회상을 수렴하여 캐릭터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전통적 수사드라마가 가지는 캐릭터의 이분법적 구도를 변주하거나 전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최근의 수사드라마 캐릭터의 변화는 시청자의 공감과 흥미를 이끌어

내는데 적절했으며, 입체적 캐릭터를 구축하고, 서스펜스를 강화하며, 범 죄 이면에 숨겨진 부조리한 인간군상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유와 성찰로 시청자를 효과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수사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을 더욱 강화하며 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최근 수사드라마의 캐릭터가 그 유형이 확장되었으며, 캐릭터 간의 구도가 변주, 전도되었음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와 함께 진행되었을 캐릭터화 기법 상의 변화는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차후의 연구로 미뤄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허규·박철·유홍렬·이년현·이효영·강철호 외 연출, 김정환·신명순·이상현·윤대성 외 극본, MBC, 1971.3.6.~1984.10.18./1985.5.2.~1989.10.12., <수사반장> 영상물.
 김형식·김영민 연출, SBS, 2011, <싸인> 영상물.
 김은희·장항준 극본, SBS, 2011, <싸인> 대본.
 김형식·박신우 연출, SBS, 2012, <유령> 영상물.
 김은희 극본, SBS, 2012, <유령> 대본.

2. 단행본

- 강맹진·김진철, 『현대사회와 범죄』, 2007.
 김인영 외, 『비리와 합리의 한국사회』, 소화, 1999.
 데이비드블, 김석만 역, 『통쾌한 희곡의 분석』, 연극과 인간, 2007.
 로럴드 L.에이커스·크리스틴 S.셀러스, 민수홍 외 공역, 『범죄학이론』, 나남, 2011.
 마이클 스톤, 허형은 역, 『범죄의 사회학』, 다산초당, 2009.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역, 『시학』, 문예, 2013.
 에르네스트 만델, 이동연 역, 『즐거운 살인 -범죄소설의 사회사』, 이후, 2001.
 오명환, 『텔레비전 드라마 사회학』, 나남, 1994.
 _____, 『텔레비전 드라마 예술론』, 나남, 1994.

이명우, 『희곡의 이해』, 박이정, 1999.

윌러드 헌팅턴 라이트, 송기철 역, 『위대한 탐정 소설』, 북스피어, 2011.

이브 피테르, 김경현 역, 『추리소설』, 문학과 지성사, 2000.

James Blair, Derek Mitchell, Karina Blair, 이윤영 · 김혜원 옮김, 『사이코패스 : 정서와 뇌』, 시그마프레스, 2012.

S.지젝, 김소연 · 유재희 역, 『뽀딱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T.토도로프, 신동욱 역, 『산문의 시학』, 문예, 1992.

3. 논문

김영성, 「한국 추리서사의 서사성과 대중성에 관한연구(1) -추리서사의 사적 개념과 적용 범주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화』 제29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김유미, 「2000년대 텔레비전 추리 드라마의 특징 -심리적 요소의 활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61호, 민족어문학회, 2010.

윤석진, 「영상예술시대 극예술 장르에 관한 시론 -2000년대 후반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 연구』 제44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_____, 「‘놀이’로서의 TV드라마 시청 방식 고찰」, 『한국언어문화』 제47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이영미, 「젊은 시청자 층의 취향변화, 추리와 웃음」, 『플랫폼』 제1호, 인천문화재단, 2006.

주현식, 「텔레비전 드라마 <싸인>의 시작 방식과 연행성」, 『대중서사연구』 제25호, 대중서사학회, 2011.

4. 기타

윤석진, 「‘시적 정의(poetic justice)’의 수호자」, 『드라마 캐릭터 열린 14』, 동아일보 2011.2.25.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ing Trend of Character Types in Police Procedural Television Series - Focusing on TV drama <Sign> and <Phantom> -

Kwon, Yang-hyun

The police procedural is a sub-genre of detective fiction which stirs human beings' long-lasting pleasure arising from solving the riddle of cases through deductive reasoning while letting television viewers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ng process. What is more, police procedurals play a role in awakening one's desire concealed inside crimes and reflecting their existence as a human being, as well as evoking social consciousness.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character types based on the traits of the genre although research with regard to police procedurals has been scarce, which is in contrast to the fact that a great deal of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ir values and changes in police drama genre. In other words, the aim of the study is that through the exhaustive examination of police dramas aired in the past and the current days such as <Chief Investigator>, <Sign>, and <Phantom>, the changing trend of character types in these police procedural television series is to be investigated and further to be contemplated as to how this phase has an impact on the evolution of this drama genre.

As a consequence of this study, two distinguishing aspects of characters at large have been recognized between current police dramas and traditional ones, one is the extension of a character's external type and the other is the alteration and evolution of traditionally dichotomous characters respectively. To begin with, the development of external characters

has had an effect on stimulating viewers' interest by enabling them to experience gratifying moments of dramatic tension in the genre and further contributed to the diversification of drama topics. In addition to this, one of the most remarkable points in the alteration of drama character types is that the characterization of the upper class has become criminalized. This kind of change allows the audience to be exposed to hypocrisy which people in high social status holds and thus to take part in the process of critical thinking and reflecting on social issues that our modern society currently faces. Furthermore, the role of detective characters, who have been tracing and investigating crimes and offenders, has been displaced as that of victims, and criminal characters once in a while tend to become role-changed into the chaser or controller of investigators, leading to escalating drama suspenses in police procedurals.

To sum up, current police procedural television series show signs of the changing and strengthening trend in genre traits through modifying and varying the character types of previous police procedurals.

Key words: police procedurals, characters, the extension of character types, the alteration of traditionally dichotomous characters, <Chief Investigator>, <Sign>, <Phantom>

접수일: 2013년 10월 31일

심사기간: 2013년 11월 11일~12월 7일

게재결정: 2013년 12월 7일